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돈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다섯 남자의 어머니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오월특집 양곡리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00 논설주간 세상보기 황호택의 눈을 떠요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삼성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신문으로 보는 세상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40 일일드라마 <뜻님이 주의보>(재)
11 0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여풍당당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 스포츠 타임 20 가정이 달 기획 <사랑의 가족> 50 위기탈출 남버원(재)	00 주말드라마 <금나와라 독막>(재)	2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12 20 뉴스와이드 1~2부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 특별기획 <백년의 유산>(재)	00 SBS 12 뉴스 30 테미스페셜(재)
1 00 KBS 갈actic <적도의 남자>(재)		00 비타민(재)	25 MBC 스포츠 <서울업 국제 여자 핸드볼대회 대한민국vs러시아>	30 와이드 커넥션
2 3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0 VJ특공대(재)		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40 이연경의 직언직설	00 노인 세상에 말을 걸다(재) 20 다큐공감(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는(재) 3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3시 뉴스 10 똑막이 저서 베스트	10 금요일엔 수다대(재)
4 50 김광현의 팀팅명령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必通)>	00 엘리먼트 헌터 30 TV유치원	00 어린이 동물구조대 30 포르르 방울이 친구들	00 매일일마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래피		00 두리몽실 문제공황(재) 30 명랑직장백서(열정시대)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프리미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새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뉴스특보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고향을 부탁해	05 세상발견 유레카
7 1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시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뜻님이 주의보>
8 20 박종진의 쾌도난마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20 아구가 좋다 50 황금 카메라	55 MBC 특별기획 <구암 허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커 세상에 이렇듯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칼투의 배란다소	
10 00 KBS 파노라마 50 콘서트 필2		00 수목드라마 <천명>	00 수목미니시리즈 <남자가 사랑할때>	00 드라마 스페셜 <내 연애의 모든 것>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타임	20 300회 기획 해피 투게더	20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20 자기가
12 10 이영돈PD 논리로 풀다(재) ①:20 그 여자 그 남자(재)	00 KBS 글로벌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KBS 걸작다큐멘터리(재)	40 세상의 모든 다큐 <고대 로마의 미술을 말한다 제1편>	40 MBC 뉴스24 ①:00 스포츠 다이아리 15 MBC 플러스 특선 <어메이징(x)>	40 SBS 토론 공감

“복합적 감정 표현 어떻게 전할까 고민”

손예진, KBS ‘상어’ 검사 배우역... 3년만에 안방극장 복귀

“앞으로 비밀을 파헤치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드라마가 끝나고 어떻게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까 고민이 될 정도로 말이죠.”

KBS 2TV 새 월화극 ‘상어’에서 재발가 외동딸이자 검사 역할을 맡은 배우 손예진(사진)의 말이다.

21일 강남구 컨벤션아마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주인공 조해우 역을 맡은 손예진은 “처음 맡는 검사 역할인데 여러 감정 표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연기를 보여드릴 것 같다”며 “3년 만의 드라마인데 어떻게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까 고민”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시청자가 배우의 시선으로 사건을 파헤치게 된다. 검사로서 사건을 이야기하다 보니 대사량도 많고, 그런 대사를 어떻게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할까 연거푸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어’는 가족의 복수를 위해 사랑하는 여인에게까지 칼끝을 겨누는 남자 한이수(김남길 분)와 그와의 운명적 사랑 앞에 흔들리는 여자 조해우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손예진으로서의 ‘개인의 취향’ 이후 3년 만의 드라마 출연이다.

“드라마를 마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힘든 작업이어서 쉽게 택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멜로다운 멜로를

하고 싶었고, ‘상어’에는 멜로뿐 아니라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도 있었죠.”

공백기를 가진 미니미니 배우들의 출연에 아픈 사람 이야기까지. 최근 종영한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와 비교될 부분이 많다.

그는 “그 겨울’은 영상도 멋지고, 매력적으로 잘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 드라마는 예쁘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 속 인물들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보면 굉장히 많이 다드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차이를 강조했다.

상대역 김남길에 대해서는 “첫인상은 진지하고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밝고 재미있고 유머 코드도 나와 비슷하다. 드라마의 진지함 속에서도 어떻게 서로 웃길까 고민할 정도”라며 웃었다.

어느새 12년차 배우인 손예진이다. 그는 “예전에는 그냥 대본을 읽었는데, 이제는 깊이가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주변 여배우들의 결혼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피할 수 없는 물음에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개인적으로도, 여자로서도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촬영하면서 결혼식 리허설을 많이 해봤으니 실제로도 안 떨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연합뉴스



손호영, KBS ‘일말의 순정’ 하차 결정

여자 친구 사망 충격... ‘모든 공식 활동 불가능’

소유 승용차에서 젊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가수 겸 배우 손호영(33·사진)이 KBS 2TV 시트콤 ‘일말의 순정’에서 하차한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22일 “손호영씨가 스토리상 자연스럽게 빠지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이미 촬영한 분량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손호영은 최근 ‘일말의 순정’에 합류해 손대리 역을 맡았다.

MBC도 손씨가 임시로 DJ를 맡았던 MBC 라디오 FM4U ‘두시의 데이트’ 진행을 22일은 방송인 박명수가, 23~26일은 은지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후 계획은 아직 정

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의 모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손씨의 차량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손씨의 음반전속계약사인 CJ E&M은 “숨진 여성은 손씨와 1년여 간 진지하게 교제한 일반인”이라며 “손씨가 최근 앨범 작업으로 바빠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으나 이렇게까지 확대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모든 공식 활동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BS

06:00 건강환 아침	09:40 깨미	14:05 버블버블 언어친구들	18:45 정글북
06:10 한국기행	09:50 지구를 지켜라	14:35 몬스터 수화나라	19:00 EBS 뉴스
06:30 미래 직업, 또는 직업	10:10 세계대기행	15:00 제로미오의 모험	19:20 EBS 진지기획
07:00 곤	10:30 황금의 땅, 우크라이나 4부	15:30 비두와 친구들	19:25 지식채널e
07:15 비두와 친구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마야의 모험	19:30 지식발전 프로젝트
07:30 마야의 모험	(신호선의 두구나 반할만한 레시피 - 안식 스테이크와 언어 셀러드)	16:00 덩동명 유치원 1~2(재)	20:2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7:45 부흥! 부흥! 부흥미즈	11:20 부모	16:20 피들리엄	20:50 세계대기행 <중국 원나라>
08:00 덩동명 유치원 1~2	(가족고민상담소)	16:30 꼬미버스 타요(재)	21:30 한국기행(재주)
08:20 시계마을 타기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춤추는 곰 공야(재)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용서)
08:35 꼬미버스 타요	12:10 EBS 다큐프라임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극한직업 <기장 걸치잡이 2부>
08:50 춤추는 곰 공야	(조선두부 애국을 깨우다)	17:10 시계마을 타기투(재)	23:15 EBS 인문학 특강
09:00 부귀대장 뽕뽕이	13:05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7:25 부흥! 부흥! 부흥미즈(재)	24:05 EBS 스페셜 공감 1~2
09:15 부귀대장 눈보리	14:00 지식채널e	17:4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4	
09:30 피들리엄		18:30 곤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초등 내공 남남 <과학 3-1>
06:10 내신 6강	<수학II> 12:30 <수학II>	07:30 EBSe 생생영어	15:50 <과학 4-1>
01:40 포스	<문학I> 13:00 <생명과학II>	08:00 물리관리사 시험 대비 강좌	16:20 <과학 5-1>
02:30 <문학II>	14:00 <지구과학II>	08:30 선택 직업과 진로	16:40 <과학 6-1>
03:20 <적분과 통계>	15:00 <인턴넷 수능> <수학I A형>	09:10 TV 중학 <국어I>	17:20 초등개념 잡기(사회)
04:10 <기하와 벡터>	16:00 <기술플러스> <수학I B형>	09:50 <수학II(하)>	18:00 동물대탐험(구리구리 명명)
05:00 <수학II>	17:00 <인턴넷 수능> <듣기B>	10:30 <한문>	18:30 수학의 원리 마더미터가
05:50 <물리I>	18:00 <수학I A형> <수학I B형>	11:10 <도덕I>	18:40 어린이 역사드라마(점포)
06:40 <영어특혜의 기본(1)>	20:00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II>	11:50 <수학II-1>	19:20 <수학II-1> 19:20 <수학II-1> 19:20 <수학II-1>
07:30 <Basic Grammar>	21:00 <수학II>	12:30 <과학II>	19:35 <수학II-1> 19:35 <수학II-1>
08:20 <화학I>	21:50 <지식채널e>	13:10 <도덕II>	20:00 <과학II> 20:00 <과학II>
09:10 <생명과학I>	22:00 <생명과학I>	13:50 <도덕II>	20:40 <과학II> 20:40 <과학II>
10:00 <지구과학I>	23:0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4:30 <도덕II>	21:20 <과학II> 21:20 <과학II>
10:50 <물리II>	23:55 <배움더미>	14:50 <도덕II>	22:40 <과학II> 22:40 <과학II>
		15:10 <도덕II>	23:20 <과학II> 23:20 <과학II>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3일(음 4월 14일 己丑)

子	36년생 유도해야 효과가 크다. 48년생 분주한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보인다. 60년생 잠깐의 요동이 있을 수나 곧 안정되리라. 72년생 소중함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84년생 수효는 늘어나지만 실속은 없다. 행운의 숫자 : 77, 09	午	42년생 반드시 억제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54년생 알고 있더라도 또 살펴야겠다. 66년생 진행의 정도가 적절하니 앞서가지 않는 것이 낫다. 78년생 신용을 잃은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4, 19
丑	37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다. 49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61년생 비교되면서 진가가 드러나리라. 73년생 오류가 있다면 즉시 수정하라. 85년생 속명점으로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다. 행운의 숫자 : 17, 41	未	43년생 규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이다. 55년생 유혹에 이끌리다 보면 후회하게 되어 있다. 67년생 희망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79년생 털어놓고 상의해 본다던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2, 68
寅	38년생 구경만 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속히 대비하라. 50년생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62년생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는 것이 낫다. 74년생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52	申	44년생 도와주는 이가 있어서 겨우 체면을 유지하리라. 56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한다. 68년생 지나치다 보면 신경과민을 야기할 수도 있다. 80년생 표현의 기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리라. 행운의 숫자 : 38, 33
卯	39년생 상승의 운세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51년생 귀한 이가 떠나거나 귀중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 63년생 완급과 강약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야겠다. 75년생 마무리까지 잘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31, 07	酉	45년생 유동적이니만큼 변수의 폭까지 감안해야겠다. 57년생 예견된다면 확실히 회피하는 것이 낫다. 69년생 사소하게 여겨 왔던 것 속에 비밀의 열쇠가 있다. 81년생 활로가 트이는 기분이 조성되리라. 행운의 숫자 : 72, 26
辰	40년생 달갑지 않은 이와 우연히 마주칠 수다. 52년생 넘어지거나 빛나갈 수도 있느니라. 64년생 원칙을 무시하다가는 큰코 다치게 될 것이다. 76년생 말도 못하는 이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3, 59	戌	46년생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눈에 띈다. 58년생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 70년생 생각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직접 실행하라. 82년생 차선책까지 모색해 두자. 행운의 숫자 : 27, 80
巳	41년생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53년생 강구하더라도 헛집만은 없을 것이니라. 65년생 강인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77년생 밝고 활기차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63, 47	亥	47년생 유사한 점은 적고 상이한 면이 태반이리라. 59년생 이면의 불세례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71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쓸 때다. 83년생 허황된 것이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5, 7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굿바이 미스 김”... ‘직장의 신’ 막 내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송별회라도 하자는 동료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미스김은 떠났다. 계약기간 3개월이 종료하자 미련없이 회사를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다. 스스로 비겁해지지 않으려 오롯이 홀로 서는 법을 배운 그의 결기였다. 그러나 이런 미스김을 만들어 낸 것은 기법 못 갖는 계약자의 슬픈 현실이었다.

KBS 월화드라마 ‘직장의 신’이 ‘슈퍼 계약직’ 미스김이 예정대로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2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마지막 회 전국 시청률은 14.2%였다. 총 16회의 평균 시청률은 13.0%였고, 자체 최고 시청률은 지난달 23일 기록한 14.6%로 집계됐다.

드라마는 미스김을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

정규직, 정리해고와 청년실업 등 우리 사회 고공 불안의 문제를 날카롭게 풍자했다. 매 회 펼쳐지는 코믹한 상황에는 우리 사회의 씩씩한 현실이 담겨 있었다. 100개가 넘는 자객증을 갖출 정도로 만능에 계약된 업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수하지만 계약사항이 아닌 업무는 칼같이 거절하고, 회사 동료들과 인간적인 관계는 맺지 않는 미스김은 비정규직의 또 다른 정점을 보여줬다. 인간적인 동료애를 강조하면서 정리해고를 서슴치 않는 회사의 이윤배반적인 모습도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p>비양도로 떠나는 카약 여행</p>	<p>다인, 원의 탈출을 돕는데</p>	<p>고부간의 직중우물 1박 2일</p>
<p>한국기행(EBS TV·23일 밤 9시30분) = 푸른 섬 제주도. 한국기행팀이 이리만큼 들어도 실래는 무한한 매력을 품고 있는 섬 제주도를 찾았다. 4부는 ‘가자, 카약 타고 비양도로’. 손에 잡힐 듯 가깝고도 먼 비양도는 제주도의 북서쪽, 한림읍 협재리에 속한 오름이자 섬이다.</p> <p>하루에 두 번 오가는 비양도를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물살을 물로 느끼며 비양도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다. 카약을 타고 푸른 바다를 가르며 비양도로 향하는 백종호씨 일행을 따라가다 보면, 배로 이동할 때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온다. 비양도는 섬의 둘레가 5km인 작은 섬이지만 자연산 톨카 인심은 넉넉한 곳이다.</p> <p>자연 일출은 그대와의 때 묻지 않는 비양도, 그곳으로 떠나보자.</p>	<p>천명(KBS 2TV·23일 밤 10시) = 조선 중종 말년(1544년) 어느 밤. 세자 주치의가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다. 내외원 의관 최원이 이 사건의 누명을 쓰지만 극적으로 탈출한다.</p> <p>9화에서 원은 김치용에게 덕팔의 송문을 풀어놓으면 말과 도망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갈등한다. 다인은 권내에서 랑을 치료하며 원의 탈출계획을 은밀히 돕고, 랑이 켈로 간 데에 의구심을 품은 이정환은 켈로를 앞을 감시, 원을 찬양하는 데 집중한다.</p> <p>한편 문정왕후와 소윤파의 계략으로 문정왕후에 대한 이호의 불순한 행동과 심복 사사 사건을 문제 삼아 중종이 양위의 뜻을 거두게 하고, 대역죄인 최원을 끝내 숨겨준 죄를 물어 급기야 이호는 폐세자의 위기에 처하는데..</p>	<p>윌کم 투 시월드(채널A TV·23일 밤 11시) =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떠나는 생애 첫 고부 여행. 동화 같은 펜션에서의 하룻밤. 적과의 동침이 될 것인가? 고부갈등의 원인을 풀고 있을 것인가?</p> <p>9화에서 원은 김치용에게 덕팔의 송문을 풀어놓으면 말과 도망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갈등한다. 다인은 권내에서 랑을 치료하며 원의 탈출계획을 은밀히 돕고, 랑이 켈로 간 데에 의구심을 품은 이정환은 켈로를 앞을 감시, 원을 찬양하는 데 집중한다.</p> <p>한편 문정왕후와 소윤파의 계략으로 문정왕후에 대한 이호의 불순한 행동과 심복 사사 사건을 문제 삼아 중종이 양위의 뜻을 거두게 하고, 대역죄인 최원을 끝내 숨겨준 죄를 물어 급기야 이호는 폐세자의 위기에 처하는데..</p>